

공동체 사역-부록

1999년 11월 12일, 순예배도우미

내 백성을 위로하라

1. [찬송가 255장, 너 시온아 이 소식 전파하라]를 함께 부릅니다.

메들리찬송가 [찬송가 259장, 빛의 사자들이여] [메경 303장,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2. 인도자가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순과 순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3. [이사야 40:1-11] 말씀을 함께 혹은 각자 3번 이상 읽고 묵상한 것을 나눕니다.

¹"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²"예루살렘 시민에게 다 정스레 일러라. 이제 복역기간이 끝났다고, 그만하면 벌을 받을 만큼 받았다고, 야훼의 손에서 죄 벌을 곱절이나 받았다고 외쳐라." ³한 소리 있어 외친다. "야훼께서 오신다. 사막에 길을 내어라. 우리의 하느님께서 오신다. 벌판에 큰 길을 흰히 닦아라. ⁴모든 골짜기를 메우고, 산과 언덕을 깎아 내려라. 절벽은 평지를 만들고, 비탈진 산골길은 넓혀라. ⁵야훼의 영광이 나타나니 모든 사람이 그 영화를 보리라. 야훼께서 친히 이렇게 약속하셨다." ⁶한 소리 있어 명하신다. "외쳐라." "무엇을 외칠까요?" 하고 나는 물었다. "모든 인생은 한낱 풀포기, 그 영화는 들에 핀 꽃과 같다. ⁷풀은 시들고 꽃은 진다, 스쳐 가는 야훼의 입김에. 백성이란 실로 풀과 같은 존재이다. ⁸풀은 시들고 꽃은 지지만 우리 하느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으리라." ⁹너, 시온아. 높은 산에 올라 기쁜 소식을 전하여라. 너, 예루살렘아. 힘껏 외쳐 기쁜 소식을 전하여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질러라. 유다의 모든 도시에 알러라. 너희의 하느님께서 저기 오신다. ¹⁰주 야훼께서 저기 권능을 떨치시며 오신다. 팔을 휘둘러 정복하시고 승리하신 보람으로 찾은 백성을 데리고 오신다. 수고하신 값으로 얻은 백성을 앞세우고 오신다. ¹¹목자처럼 당신의 양떼에게 풀을 뜯기시며, 새끼양들을 두 팔로 안아 가슴에 품으시고 젖먹이 딸린 어미 양을 곱게 물고 오신다.

내용연구

이사야의 첫부분(1-39장)이 심판의 메시지인데 반해 두번째 부분은 회복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각각 9개 장으로 된 3단락으로 더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40-48장 ; 49-57장 ; 58-66장). 처음 두 단락은 각각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48:22 ; 57:21)라는 말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예언은 다음 세 사건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① 바벨론 포로생활에서의 구출(이미 이사야에 의해 예언되었습니다 ; 39:7). 이것인 40-48장의 주제이며 주된 구원자는 중간 쯤 언급되었던 고레스입니다. ② 고난받는 종의 배척과 회복. 이것은 49-57장의 중간 부분인 52:13 - 53:12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③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세계의 회복하시는 일의 완성. 이 세번째 단락(58-66장)의 중심은 메시아의 오심(61-63장)입니다. 이사야가 이 예언들을 쓸 때 유다는 바벨론에 함락되는 어려움을 100년 앞두고 있었고 그후 70년간 포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래의 포로 생활과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이사야는 유다 백성들이 다가오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살기를 권장했습니다.

1-11절의 구원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그들의 심판의 시간이 거의 끝났다고 말씀하시므로써 시작됩니다. 위로란 말이 반복되는 것은 강조를 위한 것입니다. 바벨론 유수를 앞두고 이사야는 계약의 백성이 위로받기를 원했습니다. 예루살렘에게는 마치 어머니가 아기에게 말하듯 정답고 부드럽게 말해야 합니다. 70년 간의 고통스러운 포로생활을 해야만 했던 까닭은 유대의 죄 때문입니다. 포로생활은 심판이었습니다. 이제 그 죄의 값을 치루어졌고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새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는 참 예언자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각각은 여호와와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영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골짜기를 높이고 산을 낮추는 것은 왕이 어떤 지역을 방문할 때 지나갈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것을 과장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붉은 카펫을 깔고 귀빈을 맞이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가 오셔서 다스리실 수 있도록 '평탄해져야 합니다'. 두번째 말하는 자의 소리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 목소리는 백성들과 하나님의 차이를 비교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시적이고 변합니다. 그들은 불에 자라서 날이 더워지면 시들어 사라져 버리는 들의 풀이나 꽃과 같습니다(시 37:2 ; 102:11 ; 103:15,16).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므로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포로생활 가운데 이것을 읽은 사람들은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란 아마도 이사야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전령은 유대 마을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포로에서 구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고 외칩니다. 하나님은 강한 왕이십니다(10). 그는 힘으로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좋은 것(보상, 즉 복)을 가져오는 분이십니다. 팔은 이사야가 흔히 사용하는 개념입니다(40:10 ; 51:5, 9 ; 52:10 ; 53:1 ; 59:1, 16 ; 60:4 ; 62:8 ; 63:5, 12). 팔은 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하고 힘없는 양떼를 안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1 1절에 나오는 위로는 실제로 누가 위로해주시는 것입니까?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슨 기간이 끝난 것입니까? (2)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에게서 비롯됩니다. 그 복역의 때가 끝났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죄값을, 곧 징벌의 시기를 끝마쳤습니다.

'위로하다'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가 '위로하라'는 명령형으로 사용된 경우는 본문 외에 시 90:13 뿐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도 '여호와여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번역되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 사용된 것은 아주 특별한 위로의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정다이 말한다는 표현은 히브리어로는 마음에 말하다는 것인데, 이것은 삼상 1:13의 '속으로 종얼거리다'는 표현을 제외하고 호의와 온정을 가지고 대하는 것입니다. 유대의 자손들이 그 받을 벌을 '배나 받았다'는 말은 출 22:4,7,9에서 비롯된 개념으로 도둑질을 하면 배로 갚아주어야 한다는 규정과 관련됩니다. 이와 같은 말들은 유대의 징벌이 끝났다는 사실과 더불어 그 성읍 예루살렘이 재건되고 그 안에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이라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로하듯이 당신은 믿음의 형제를 위로하고 있습니까? 불행과 곤란의 때에 형제를 위로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참고 : 빌 2:1-4) 위로의 목적과 결과에 대해 깊이 생각하십시오(애 1:16, 고후 1:6, 살전 3:2,3)

광야에서, 사막에서 무엇을 예비하고 무엇을 평탄케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3) 또 모든 육체가 함께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5)

여호와와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막은 죽음과 심판의 땅입니다. 이 저주 아래 있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십니다. 5절에서 '여호와와 영광' 이 나타난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육체' 를 언급한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이 범우주적이며 보편적인 성격의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해방될 때 여호와와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속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더욱 크게 계시하실 것입니다.

* 죄로 인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있는 이 땅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요 1:9-14) 당신에게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더욱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인지 나누어 보십시오(막 16:15, 행 20:24, 고전 9:16, 엡 3:7).

6-8절에서 곧 사라져 없어질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비유해줍니까? 이와 반대로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들의 풀과 꽃은 곧 사라져 없어질 것들인데, 이들은 육체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와 기운은 원래대로라면 '여호와와 영' 곧 성령과 같은 말이지만, 본문에서는 다른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창 8:1은 하나님이 이 기운, 즉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시니 홍수로 물이 가득 찼던 땅이 말라가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것이며, 그분의 구속의 진리는 변할 수 없습니다.

*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일수록 무엇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있습니까? (시 119:131) 당신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까? 당신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 이와 같은 갈급함이 있습니까?

4 이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실 때입니까? (10) 또한 하나님과 그 백성들은 무슨 관계에 비유되고 있습니까? (11)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의 백성에게 상급과 보응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은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10절에는 하나님의 전사다운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 로 임하실 것이며, 그 팔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11절은 시편 23편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양무리를 돌보시는데, 특히 어린 양은 특별히 품에 안고 보호하시며, 암컷들도 특별히 부드럽게 다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사로서 승리하시며, 목자로서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 당신의 삶이 부족함이 없는 참된 비결은 무엇입니까? 목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나누어 보십시오(시 39:7, 마 6:31,32, 빌 4:12,13).

■ 11월 13-20일 공동체 교회 봉사 안내				■ 11월 공동체 예배 봉사 안내				
교회봉사	공동체		봉사일	1부	동서울 임직자			
교회청소	강서·양천		11월 13일	2부	중종로·용산 임직자			
주차봉사	교회	통 일	11월 14일	3부	이촌 임직자	햇	안내	송파·성남 임직자
	햇	볼 서 초				볼	헌금	강남 임직자
새벽기도	특별새벽기도회		11월 15-20	4부	서빙고·영등포 임직자			
예수향기회	통 일		일	6부	구로·부천 임직자			